



# 정교회 주보



성 테렌디오스와 성 네오닐리와  
그들의 일곱 자녀 순교자들

## 루가 제 6주일

아레타스 대순교자, 세바스티아니 순교자  
제 1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조 부활 찬양송 / 82,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II고린토 9:6~11 / 봉독서 272
- 복음경 : 루가 8:27~39 / 126, B 7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교회의 기혼 성인들

### 성 테렌디오스와 성 네오닐리와 그들의 일곱 자녀 순교자들

우리 교회에서 10월 2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테렌디오스와 성 네오닐리는 일곱 명의 자녀를 둔 부모로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신에서 언급한 “자기집안에 모인 교회”(I고린토 16:19)를 실제로 이루며 살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한 영혼,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 부부에게도 체포의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테렌디오스와 네오닐리는 아이들을 위해 멀리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머무르면서 어떠한

순교도 용감하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잠겼습니다. 다섯 아들과 두 딸들은 여기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박해는 어디에나 퍼져있습니다. 우리의 피신이 그곳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순교자들과 용감하게 투쟁하는 자들에 의해서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은 그들의 결정을 굳건히 믿고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참수형을 받으며 순교하였습니다.

## 당신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컴퓨터와 이동통신에 혁명을 일으킨 애플의 억만장자 스티븐 폴 잡스(Steven Paul Jobs, 1955-2011)는 56세의 나이로 죽기 전에 SNS 개인계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내용입니다. :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인생이 성공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일을 빼면 제 기쁨은 작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가져다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얻은 부(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얽힌 일, 말, 생각의 기억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동반하며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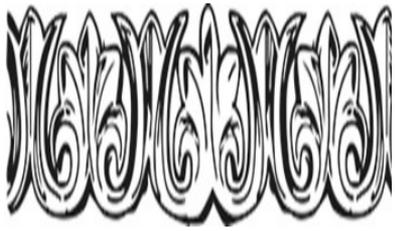
결국 사람은 물질적 부(富)만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재화는 많은 영적인 덕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누구에게나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물질보다 영원하고 부패되지 않는 영적 덕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경험은, 스티븐 폴 잡스가 가르쳐준 것처럼 물질적, 영적 보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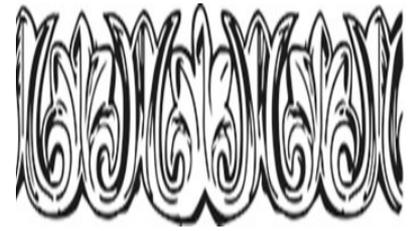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마태오6:19-21)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에 "붙어 있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큰 영적 보물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 '이름 없는 순례자' (어느 러시아인의 순례이야기)



정교회의 명작인 이 책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데살로니카 1서 5:17)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기도(‘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읊조리면서 광활한 시베리아의 초원지대를 여행하는 익명의 러시아인 순례자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말할 수 없으리만치 큰 위로와 위안을 내게 주었으며,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창조물은 없다고 느꼈고, 만일 내가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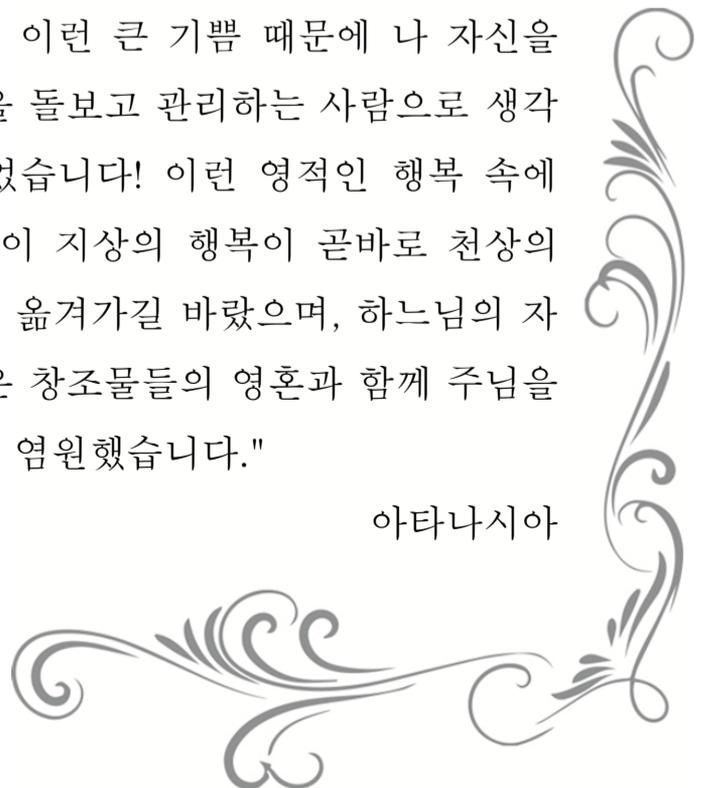


이 기쁨은 내 마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도리어 내 주위의 다른 모든 세계가 아름다움과 기쁨 속에 잠겨있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느님께 바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나무, 식물, 동물 등 모든 것을 나의 친척인 창조물로 여겼으며, 하느님의 신비로운 힘이 그(것)들 안에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이런 내적인 기쁨으로 인해 나는 내가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생각을 내 자신에게 집중하곤 하였으며,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다양한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창조한 지혜와 완벽함, 편리함, 그리고 그 세밀함에 대해 경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런 큰 기쁨 때문에 나 자신은 온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행복 속에서 나는 이 지상의 행복이 곧바로 천상의 기쁨으로 옮겨가길 바랐으며,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창조물들의 영혼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염원했습니다."

아타나시아



## 주보 소식

### 대교구

#### ■ 새로운 거룩한 의사 성인들에 대한 축일 제정

지난 9월 28일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병들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치료하고 봉사한 의사 성인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축일을 제정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18일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의사들 축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안드레아스 하말리스 교우와 엘레니 조혜원 교우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리스인인 신랑 안드레아스 하말리스 교우는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였고, 신부 엘레니 조혜원 교우도 정교회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일을 성실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성사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가족제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즘 젊은 남녀들의 결혼율은 매우 낮습니다. 둘째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 출산율도 매우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결혼성사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영적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축복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한 가정, 한 몸을 이룬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행복한 정교인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7일(일)에 박 데오미드 유아가 로만 카프착 신부가 집전한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 주간예식



10월 26일(화)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